

사랑과 성에 관한

특별한

두가지 입장

환도와 리스

로리타



연당소극장

로리타

나바코프 작/ 에드워드 올비 각색/ 이성규 연출

공연 일시

1997. 4. 10(목) ~ 4. 30(수)

평일 7시 30분 토/일 3시, 6시

공연 장소

연당소극장

출연진

험버트 · 김윤석
 로리타 · 변미선
 중년신사 · 김상훈
 켈티 · 유상훈
 샤롯데 · 이에원
 덕, 청년 · 오세원
 간호원, 리타 · 손경하
 문지연

제작진

연출 · 이성규
 조연출 · 김보영
 무대감독 · 하현관
 무대미술 · 김인준
 조명 · 류영운, 손숙경
 효과 · 정혜경
 소품 · 송지연
 의상 · 김정희
 진행 · 박지혜
 임원석
 김도형

작품해설

나바코프와 로리타

로리타

등장 인물을 통하여 현실적 리얼리티를 제시했다고 착각하는 작가들에게 나바코프는 예술 작품이 도덕적 설교나 교훈이나 사회개혁이나 기타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바코프에게 있어, 예술작품은 단지 호기심, 부드러움, 친절, 황홀 등의 미학적 지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영감과 조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작가는 “한가지 요술을 다른 요술을 통해 보여주는 마술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놀라움과 경이의 기쁨을 위해 자료를 교묘히 배합하고, 변장과 요술을 통해 독자에게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퍼즐을 제공하여 미학의 지복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바코프는

“현실이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세계인데 비해 걸작은 창조적이며 독특하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바코프는 실제(리얼리티)는 오직 작품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은 그에게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망명자로서의 나바코프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산산 조각나는 가족적 아픔을 갖고 있으며 정치 집회와 혁명에 의해 희생되는 인간성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현실은 아예 관심권 밖이었다. 오로지 나비 연구에만 최고의 기쁨을 맛본 특이한 사람으로서 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예술지상주의자였다.

비평가들에게 내용이 사악하고 등장 인물이나 상황은 “현실감이 없고” 끔찍스럽거나 비극적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기에는 기분이 안 좋다는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그러나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의 해석이 가능한 매혹적인 작품이기도 한다. 비평가들은 주로 험버트의 도덕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비판, 토론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순

수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분명 험버트는 스스로 샤프트를 죽이지 않으며, 그후 변함없이 로리타를 사랑한다. 험버트를 유혹한 로리타는 이미 성적으로 더럽혀져 있으며, 켈티는 험버트의 왜곡된 악덕을 상징하는 바 그를 죽임으로써 험버트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화되었다고 하겠다. 작품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 험버트는 오히려 점점 도덕적으로 성장해 간다.

험버트는 분명 그의 죄를 깨닫고 있으며 내면적으로 참회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을 거슬러다 죽어가는 위대한 비극의 주인공같은 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참회, 그리고 그의 죄를 정화하기 위한 살인은 오히려 동정을 자아낸다.

이 모든 분석에도 불구하고 <로리타>에는 험버트의 이를 수 없는 사랑 이상의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 작품 속에는 현실적 문제와 작가의 도덕적 주장 등이 전혀 없다. 마치 하나의 악몽같은 동화 이야기라고나 할까. 샤프트가 죽는 장면이나 켈티가 죽는 장면에는 전혀 현실감도 긴박감도 없다.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 악몽같다.

이 작품 속에서 오직 리얼한 것은 로리타라는 인물 묘사와 험버트의 감정이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다. 운명적이고 격정적이고 마술적인 것, 극도의 자제력으로도 어쩔수 없는 광적인 것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겠는가? 험버트는 오로지 로리타만이 삶의 전부였으며 로리타는 바로 그 자신의 또다른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리타는 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얘기이다. 험버트는 어린시절에 좌절된 사랑의 노예요, 그 기억의 우리에 갇혀사는 괴물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그의 노력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로리타의

로리타

로리타

잔인함. 사랑에 빠진 불쌍한 원숭이와 늘 마음이 판 곳에 가 있는 순결하지 못한 소녀와의 관계. 12살 소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먼저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내밀한 환상속에서 사랑행위를 벌이는 험버트는 도덕적인가, 아닌가?

그토록 로리타에게 비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바치는 험버트의 눈물은 얼마만큼 도덕적 타당성을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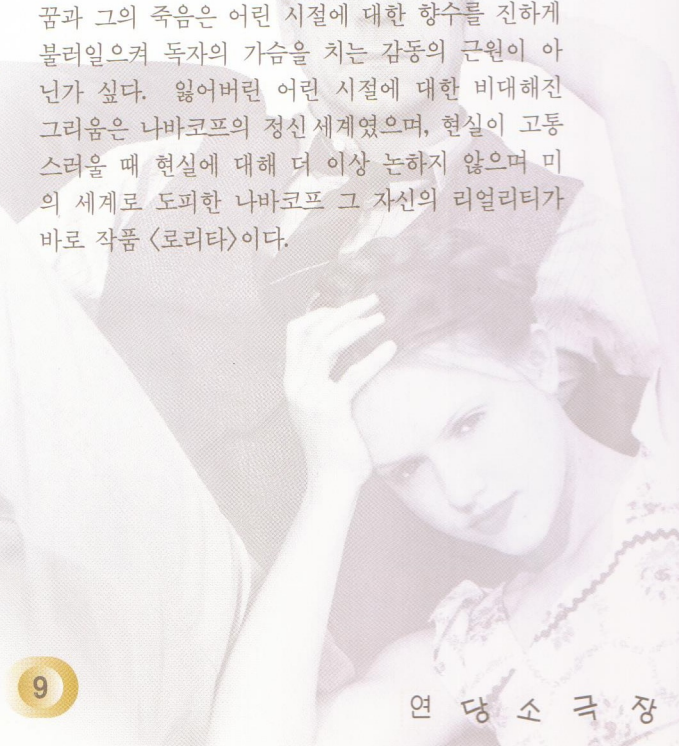
퀼타가 그렇게 되듯이 로리타는 애를 낳다 죽음으로써 배신의 대가를 치른다. 만일 그가 구제받지 못할 괴물이라면 로리타는 어떤가? 험버트가 지켜주려한 순결을 로리타는 캠프에서 우습게 버린다 험버트에게 수명적인 사랑이 로리타에게는 그저 게임에 불과했다. 속이고 이용하고 끝내는 도망간다. 그런 로리타를 그러면 우리는 부도덕하다고 나무랄 수 있는가? 어린이를 가둬 그 젊음을 희생시킨 험버트보다 로리타가 더 나쁜면 얼마만큼 더 부도덕한가?

이상과 같은 도덕적 토론이 여기에서는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오직 '동정'의 문제이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덕률은 더 이상 이 작품에 적용되지 못한다. 이런 요소들이 이 작품에 모호성을 주는 이유가 되겠고 매력이기도 하고 모더니즘의 도덕적 완고함의 코믹한 탈출을 시도한 현대적 감각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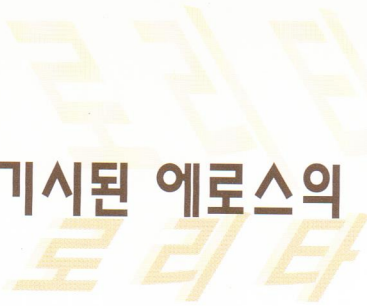
로리타에게서 사랑이야기 이상이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로리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더 이상 환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때 로리타는 그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더 이상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은 로리타의 어린 시절을 빼앗았고 험버트가 사랑한 것은 로리타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험버트가 추적했던 것은 그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어린 시절 아나벨과의 첫사랑, 그것의 좌절은 그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인생의 틈을 벌려놓은 이 슬픈 기억은 그를 아이들을 탐하게 하는 이상성격으로 만든다.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천박한 미를 가진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녀들은 중년의 남자에게 인간이 아니라 마술적 힘을 가진 악마로서 작용한다. 어린 소녀에 대한 내밀한 욕망을 억제하고 정상인 인 것처럼 살다보니 자신만의 환상속에 갇혀 은밀한 만족의 기쁨을 맛보는 광인이 되고 만다. 험버트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조국을 등지고 방랑자로서 살아야했던 작가 나바코프의 모습이기도 하다. 험버트의 가망없는 꿈과 그의 죽음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진하게 불러일으켜 독자의 가슴을 치는 감동의 근원이 아닌가 싶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비대해진 그리움은 나바코프의 정신 세계였으며,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현실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으며 미의 세계로 도피한 나바코프 그 자신의 리얼리티가 바로 작품 <로리타>이다.



금기시된 에로스의 장막을 뚫고



- 금기시된 에로스의 장막을 뚫고 어린 시절과 원시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실존적 인간의 열정과 고뇌를 통하여 천 박한 성의 문제가 아닌, 깊이있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다.
- 신화처럼 아름답지만 금기시된 사랑. 죽음처럼 집요한 사랑. 그것은 원죄에 가깝도록 인간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험버트의 감정과 로리타의 이미지이다.
- 관객들에게 사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여 참여케하며, 관객들의 사고와 도덕관을 다각적으로 논평하고 메시지를 가함으로써 즐거운 모독을 경험케한다.
- 험버트의 괴물스러우나 유머러스한 속삭임과 그의 무모한 삶에서 현실세계의 끝없는 탈출을 꿈꾸는 우리 현대인에게 자유분방함의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 이 연극의 극적 서스펜스는 기본적으로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전이다. 퍼즐게임, 추리극적 기법을 잘 활용한다.
- 이 작품은 메타픽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중년신사와 험버트, 켈티간의 일종의 예술적 환상게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집착과 광희, 그리고 피비린내 이후의 허무... 인생은 한낱 연극인가? 환상인가? 허구인가?
- 작품을 통하여 형체는 없으나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 그림자를 느끼게 한다. 그것은 악의 얼굴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인물들도 주인공의 의식이 빚어낸 분신들이다. 해설 식의 연기방법을 지양하고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연기, 그리고 자연스러움.
- 험버트란 인물을 도전적이고 괴물스런 이상성격자에서 실존적 고뇌와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깊이있는 인물로 전환되게하여 그의 눈물과 고통에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나머지 인물들도 선/악의 개념이 아닌 간헐 에로스의 그물에 찢긴 슬픈 존재들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에로스를 변호한다.



로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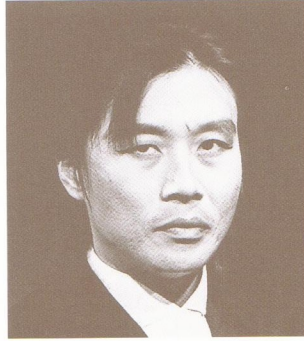
움베르트 / 김윤석



로리타 / 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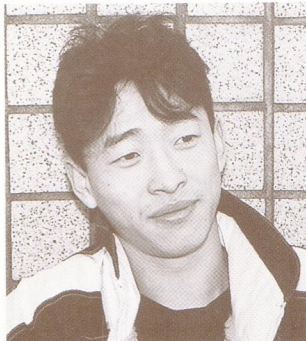
중년신사 / 김상훈



켈티 / 유상호



샤롯데 / 이예원



덕, 청년 / 오세원



리타 / 문지연



리타, 관호원 / 손경하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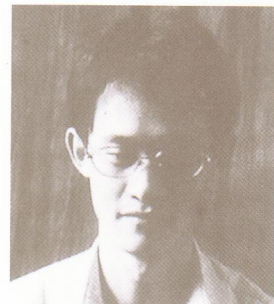
환도와 리스·로리타 제작진



기획 / 문지연



조연출 / 김보영



무대감독 / 하현관



예술감독 / 조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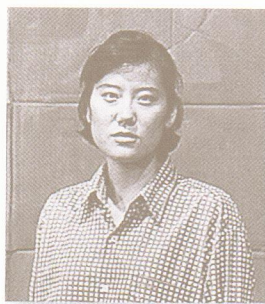
무대미술 / 장은영



효과 / 정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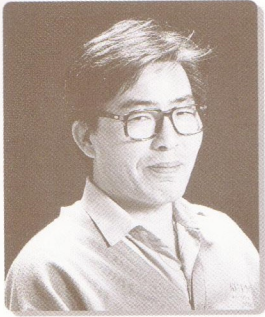


조명 / 손숙경



팸플릿, 홍보 / 김성순

- 의 상 / 허중우, 김정희
- 소 품 / 송지연
- 분 장 / 손서은
- 사 진 / 최민혜



심없는 공연을 위한 출발

대표 이성규

연당소극장(부두연극단)이 출범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단원들의 분투로 극장은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우리의 연극적 체험으로 수렴하려 한 <공연목록>은 3분의 1도 다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문화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 지역연극의 현실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고, 관객들의 문화적 기호 또한 재빨리 변화하거나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속에서 우리가 감당해 내어야 할 몫은 과중한데 비해 창조적 의욕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극장 자체 내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연극 안에서 실험연극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 우리의 연극이 될 것인지,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하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은 늘 다시 태어나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각인 시키려 합니다.

1997년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험난한, 어찌면 기회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신춘 무대로 마련하는 <환도와 리스> <로리타>에 이어 <둥둥낙랑동> <왕은 죽어간다> <뮤지컬 화엄경> 등으로 쉬임없는 한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환도와 리스> <로리타> 두 작품은 사랑과性を 통한 삶의 신비와 실존을 다루는 작품들로서 시리즈로 공연됩니다.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으로 <둥둥낙랑동> <여인 안나> <슬픈 카페의 노래> <육체의 풍경> 등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과性に 대한 실존적 고뇌는 자연스레 문명과 본능사이에서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꿈꾸었던, 현대 연극의 거장 "아르토"의 꿈과 만날 수밖에 없으며, 연당소극장의 기질과도 잘 어

울리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性は 인간과 인생에 대한, 또한 삶의 본질에 대한 가장 친근한 연극적 소재이며 주제입니다. 최근의 "저질 벗기기 연극"의 왜곡된 공연문화 풍토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랑과性的 문제를 다양한 연극적 방법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도와 리스>는 사랑의 완성을 꿈꾸나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남과 여의, 태초이래의 영원한 비극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어린이(단순성, 순진성, 유희성)의 시선으로 본 세상과 사랑의 부조리를 한편의 추상화로, 시로 표현하는 연극입니다. 대사와 행동 이면에 있는 성적 "에로스"를 현란하고 아름다운 제식(F. 아라발이 자신의 희곡에 명명한 공황 연극의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보여주는 연극이 될 것입니다.

제 2탄으로 마련한 <로리타>는 금기시된 에로스의 장막을 뚫고 어린시절과 원시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한 실존적 인간의 고뇌를 다룬 작품으로서, 40대 중년남자와 그의 법적인 딸과의 사랑이라는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상당히 벗어난 작품이지만, 괴물같은 주인공의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우스꽝스런 느낌에서 동정으로 바뀌고 인간의 보편적 아픔을 느끼게 해 주는 작품입니다. 아르토의 <쌍씨>와 같은 잔혹함과 그리스 비극 <외디푸스>와 같은 스케일이 큰 비극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문명과 본능사이에서 찢기는 현대의 실존적 비극을 다룬 작품이며 참신한 연극적 형식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올 한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 품 연 보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공연장소
1	건축사와 왓시리향제	F. 아라발	이 성 규	'84.10.4 - 14	부두소극장
2	마지막 테이프	S. 베케트	권 오 진	'85.2.23 - 27	부산시민회관 부두소극장
3	환도와 리스	F. 아라발	이 성 규	4.19 - 21	
4	뱃줄	유진 오닐	권 기 택	6.22 - 23	
5	대사없는 일막(마임)	S. 베케트	구 소 영	7.19 - 23	
6	에쿠우스	피터 쉐퍼	이 성 규	11.9 - 30	
7	에쿠우스	피터 쉐퍼	이 성 규	12.5 - 25	
8	영산회상(마임)	조종두 구성	조 종 두	12.28 - 31	
9	미스게임	윤 대 성	김 하 균	'86.4.2 - 3	
10	감마선은 달무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폴 진넬	박 영 민	7.25 - 8.3	가마골소극장
11	특별공연/ 그다음!	테렌스 맥넬리	이 성 규	9.16 - 30	가마골소극장
12	시즈위벤지는 죽었다.	A. 후가드	장 희 용	11.4 - 17	가마골소극장
13	연희단거리패와 합동공연 / 히바쿠샤	홍 가 이	이 윤 택	12.15 - 18	부산시민회관
14	히바쿠샤	홍 가 이	이 윤 택	'87.14 - 24	가마골소극장
15	잡귀, 잡신은 몰알로	이성규, 이윤택, 이정허	이 성 규	3.27 - 29	부산시민회관
16	숲속의 방	강 석 경	이 성 규	9.21 - 22	부산시민회관
17	대사없는 일막/ (마임)	S. 베케트	이 성 규	12.30 - '88.1.10	사강문화센터
18	동물원 이야기	E. 올비	이 성 규	'88.1.3 - 10	도레미문화센터
19	달라진 저승	김 광 립	이 성 규	'88.4	시민회관소극장
20	달라진 저승	김 광 립	이 성 규	5.30	대전시민회관
21	달라진 저승	김 광 립	이 성 규	'88.6.19 - 21	시민회관소극장
22	정의의 사람들	A. 까위	이 익 주	'89.9.17 - 19	시민회관소극장
23	바람을 찾는 사내	김 승 일	김 승 일	'90.3.28 - 30	부산시민회관
24	사 슬	알렉산드 겔만	이 성 규	9.14 - 10.7	가마골소극장
25	루 브	머레이 쉬스칼	이 성 규	10.1 - 15	부산시민회관
26	아름다운 오해 (원제:청혼)	안톤 체홉	김 태 진	'91.12.16 - 19	장우소극장
27	에쿠우스	피터 쉐퍼	김 경 수	12.25 - 30	도레미소극장
28	비틀거리며 달리는 사람들	미란 스티트	김 경 수	'91.12.22 - 29	장수소극장
29	금지된 장난	김 선	이 성 규	'92.3.14 - 15	부산시민회관
30	19 그리고 80	콜린 하긴스	정 순 지	9.17.20	부산시민회관
31	19 그리고 80	콜린 하긴스	정 순 지	11.9 - 15	늘원소극장
3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작 정순지/각색	정 순 지	'93.6.7 - 8	부산시민회관
3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작 정순지/각색	정 순 지	'93.6	경성대콘서트홀
34	고도를 기다리며	S. 베케트	이 성 규	'95.5.16 - 6.4	연당소극장
35	생일파티	H. 핀터	이 성 규	11.18 - 12.10	연당소극장
36	알까는 남자(원제 :자끄'혹은 '복종)	E. 이오네스코	이 성 규	'96.5.24 - 6.16	연당소극장
37	심청이는 왜 두 번 임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오 태 석	천 은 경	9.16 - 10.6	연당소극장
38	심청이는 왜 두 번 임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오 태 석	천 은 경	10.15 - 17	시민회관소극장
39	심청이는 왜 두 번 임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오 태 석	천 은 경	'96.11.2	마산올림픽 국민생활관대극장
40	하현관 무언극/ 대사없는 일막	S. 베케트	이 성 규	11.11 - 17	연당소극장
41	환도와 리스	F. 아라발	이 성 규	'97.3.10 - 21	연당소극장
42	로리타	나바코프	이 성 규	4.10 - 30	연당소극장

단원모집

- ▶모집 대상 :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
- ▶모집 분야 : 연출, 조명, 연기, 음악, 미술, 장치, 의상, 분장
(각종 예술 분야 특기자 및 전공자 우대)
- ▶모집 기한 : 수시 모집

관심있으신 분은 연당소극장으로 개별 문의 바랍니다.
대표전화. 556-2232

후원모집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문화 후견인을 모십니다.”
동래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연당 소극장의 안정된 작업과 존속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연 및 행사의
초대권과 안내자료 일체를 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인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후원금은 동남은행 018-11-004-721 (예금주 : 이성규)로 온라인 해 주시고
극장전화 556-2232로 연락주십시오.

↑ 사직동

연당소극장
(아시아자동차 지하)

← 교대 동해지하철역 온천장 →

공연 예약 및 문의

●●●●●●●●

T.556-2232

